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2면)

채승우 송파구의원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신설 간담회 개최

문정동 주민과 신설안 반영 모색
9월 본회의서 5분 발언 예정

송파구의회 채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과 박지효 의원(국민의힘·거여1동·가락2동·문정1동)이 8월 24일 오후 2시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추진위원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신설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의회 조용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장지동·위례동)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신설을 위해 지역구 의원과 주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와 대외 홍보 등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추진위원회 임원진은 문정동 일대가 공동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철도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다며, 위례과천선 추진을 통해 교통 여건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두데미역 신설 필요성을



채승우 송파구의원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들의 높은 열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박 의원은 “채승우 의원과 함께 주민들과 힘을 모아 위례과천선 두데미역 신설과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문정동 주민들이 겪어온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면 지역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야 한다”라며 “주민과 의원이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오는 9월 8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두데미역 신설안 반영을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다.